

## 2019학년도 논술고사

# 인문계열 모범답안



### [문제 1]

[문제1-1] 제시문 (가)와 (나)는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 간 관계 맺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이다. 두 글에 나타나는 관계 맺음의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1-2] 제시문 (나)의 관계 맺음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의 관계 맺음의 양상과 연결시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 [문제 1-1]

(가)와 (나) 모두 자기중심적인 관계 맺음이다. 두 글에서 모두 개인은 관계 맺기를 불편해하고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을 싫어한다. (가)에서 ‘안’과 ‘나’는 ‘사내’와 따로 방을 잡고, ‘사내’가 죽은 것을 알자 서둘러서 여관을 나와 버린다. (나)에서 역시 개인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요구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다.

(가)는 개인 간 단절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나)는 온라인상으로 접속되어 있어서 단절감을 느끼지 못한다. (가)는 실제 현실에서의 관계 맺음으로서 대면해서 이루어지며 상호성이 전제되지만 (나)는 온라인상의 관계 맺음으로서 비대면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다. (가)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밖에 없지만 (나)에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 (430자)

#### [문제 1-2]

(나)에서 개인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단한다. 그는 접속된 상태에 있으므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 (다)에서 사람들은 국숫집에서 평상에 마주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아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것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나)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관계 맺음을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복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64자)

### [문제 2]

[문제2-1] 제시문 (가)는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론을 설명하였고 제시문 (나)는 노동의 ‘경제적 지대’를 설명하였다. 제시문 (가)에 예시로 설명된 차액지대 발생의 원리를 개념적으로 요약하여 서술하고, 이러한 원리가 제시문 (나)의 경제적 지대 개념과 어떠한 공통점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제시문 (다)는 독점적 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지대’를 특허 제도를 통해 일부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제시문 (라)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다)의 주장과 제시문 (라)의 원칙이 갖는 공통점을 설명하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00(±100)자로 할 것. (25점)

#### [문제 2-1]

차액지대는 토지의 생산성 차이 또는 생산성 하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곡물의 수요가 늘어날 때 발생한다. 곡물의 수요가 아주 작아 1등급 토지들도 다 경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는 차액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곡물의 수요가 늘어나 더 생산성이 낮은 토지들이 경작되기 시작하면 1등급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그 생산성 차이만큼을 지대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토지가 경작되고 자본투입이 증가할수록 추가되는 생산량은 계속 하락하게 되는데 그에 비례하여 차액지대는 증가한다.

(나)에서 설명한 경제적 지대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때 발생한다. 보통 사람이 지니지 못한 능력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경제적 지대는 커지게 되는데, 이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생산성 차이만큼을 차액지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수요에 비해 1등급 토지나 노동이 희소할 때 지대가 커진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499자)

#### [문제 2-2]

(다)는 독점적 기업의 경제적 지대를 일정 기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라) 역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일부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경제적 지대 또는 불평등을 허용함에 있어 다른 이들에 대한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같다.

(라)는 불평등이 전체의 더 큰 선으로 보상되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주어야만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에서 강조하는 기업의 혁신이 사회의 최약자에게 이익을 줄 것 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예컨대, 기술 혁신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을 유발하는 경우는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323자)